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와 그 후

한종엽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와 그 후

한종엽_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국도서관평가, 명품 도서관 만들기의 출발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7년부터 도서관법을 근거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를 시행했다.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도서관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우수 운영기관을 발굴·포상하여 도서관서비스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었다.

해양과학도서관이 이 평가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당시 평가지표를 토대로 우리의 현 수준을 자체 진단해 보니 전년도 수상 도서관과 비교하여 부족한 점이 많았다. 결과도 자체진단과 다르지 않아, 참여기관 중에서 중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우리 도서관의 혁신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도전해 볼 고지가 생긴 것이다. 책상 위에 평가지표를 두고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현재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 계획과 실행 일정표를 짰다. 우리의 목표는 2-3년 후, 최상위 수준의 도서관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려야 했다. 도서관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하드웨어가 발전해야 하는데, 단지 도서관평가를 잘 받기 위해 모기관의 경영층에 예산과 인력, 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혁신이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후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우선 현재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가 부문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정례적인 점검회의를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도서관경영 부문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업무매뉴얼을 개정했으며, 도서관 소개책자·홍보동영상 등을 제작하였다. 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기관이기에 인적자원 부문에서는 인원을 보강하지 않고는 점수 향상이 어려웠지만, 현 인력의 교육훈련 참여를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보자원 부문에서는 장서개발계획을 세우고, 인쇄·전자자료를 증대시키고 그 종류를 다양화했으며, 특성화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보강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였다. 평가항목 중 주제전문서비스 항목은 특히 쉽지 않았으나, 이 또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보완해나갔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문인 도서관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모기관의 비전과 목표에 발맞추는 도서관

세계적인 해양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양리더 역할을 다하는 것이 모기관의 주요한 경영목표이다. 해양과학도서관은 이를 위해 국제적인 해양과학저널을 창간하고 세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왔다. 또한 자체 기획을 통해 모기관의 연구 성과를 출판했다. 이를 통해 해양과학도서관 자체 콘텐츠의 힘을 키우고, 전문적인 해양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해양교육 기능을 확대할 수 있었다.

〈iPhoto Library, 사진으로 보는 바다〉는 학술출판물에 사용한 고품질 과학사진 및 각종 행사 기록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출연연 최초로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 바다꿈나무 키우기〉는 일선학교에 해양과학콘텐츠를 제공하고 과학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의 해양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가교(library is bridge)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Ocean Science Library 영문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외국인 연구자와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데 활용하였다. 〈경영리더, 나눔도서관 책임기운동〉은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솔선하여 책을 읽고 도서관에 기증, 추천하여 전직원이 공유하는 독서운동이다. 〈도서관을 그대 품안에, Library 4U〉는 '책도 읽고! 보물도 얻고!', '자음으로 책제목 맞추기', '도서관으로 삼행시 짓기' 등 즐거운 이벤트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도서관을 좀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작은 아이디어를 빅트렌드로 만드는 티핑포인트

평가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최고를 목표로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혁신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전국도서관평가에서 정부포상을 수상하면서 모기관에서 해양과학도서관의 위상도 견고해졌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도서관의 전성기라고 말한다. 기관의 새로운 주요사업도 배정받았다. 기관의 비전에 부합하는 도서관의 목표 설정과 혁신계획이 하나, 둘 실행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엘리트 조직의 하나로 성장한 것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은 2012년 7월, 독립이사회 산하 단독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새로이 확대·발전, 출범하였다. 그동안 연구중심기관에서 교육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보다 아카데미한 면모와 이미지 변신이 필요한 모기관의 환경은 해양과학도서관의 새로운 목표를 만들었고, 도전의욕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의 목표는 일등이 아니다. 우리는 무언가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다.